

대구광역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4017호 대표전화(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053) 257-0000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6~2℃ 경북 -10~1℃

단기 4350년(음력 11월 10일)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달성군 역사 왜곡 군민 철저히 농락

우리나라 첫 피아노 유입 달성보다 부산이 3년 앞서 100대 피아노 행사 예산타령 말고 역사적 진실부터 밝혀라



달성군의 엄청난 역사왜곡이 군민을 철저 히 농락하고 있다.

달성군이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이 달 성 화원읍 사문진 나룻터라고 엄지 손가락 추 켜세웠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서 달성이 아닌 부산이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에서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달성군은 철저한 고증없이 최초 유입이란 명분으로 엉 터리 관련 행사를 주도했다.

때문에 달성군과 달성군문화재단은 역사적 진실왜곡과 짜맞추기식 행사라는 비난을 면 하기 어렵게 됐다.

■달성군 피아노 유입 역사 왜곡

달성군은 2013년 달성문화재단 주최로 한 국최초 피아노 유입과정에 대한 학술 토론회 의를 가졌다.

학술 토론회의에서 "손태용 한국음악문헌 학회 대표는 1900년 3월 26일 사이드보텀 (한국명 사보담)선교사를 통해 달성군 화원 의 사문진 나루터로 피아노가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사보담은 피아노가 도착하기 전 1900년 3 월 26일부터 3일간 피아노를 이동하는 과정 을 기록했다.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 록과 2009년 사보담의 후손들이 부산 박물관 에 기증, 한국최초의 피아노 유입 사실이 밝 혀졌다는 근거를 내세워 달성군은 100대 피 아노 행사를 만들었다.

■부산이 먼저다

달성군의 주장에 부산이 정면 반박했다.

이 모 부산세관박물관장은 이보다 3년 앞선 1897년 제3대 부산해관장 헌트가 부산주재 부영사를 겸임할 때 빅토리아여왕 즉위 60주 년 기념행사를 열면서 그의 부인이 초청인사 에게 피아노선율을 선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Hunt부인의 피아노연주는 아주 훌 륭했다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영자신문 인 코리아헤럴드와 코리아타임지 등에 칼

럼을 실었던 미국인 Robert D, Neff의 칼럼 'Jonathon H Hunt'에 기록돼 있다고 조목조 목 반박했다.

이 박물관장은 부산항이 1876년 개항을 했 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부산항을 통해 유입돼 이 시기에 피아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

■달성 피아노 최초 유입 거짓(?)

이 모 부산세관박물관장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최초 피아노 유입을 강조하기보다는 시 민과 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만들어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최초 유입이 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초라는 용어는 지방단체에서 사용하기는 가볍게 처신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 다고 말했다.

피아노 최초 유입지에 관한 자료는 2013년 학술 토론회의때 충분히 검증될 수 있었던 내 용이다.

달성군민들은 매년 100대 피아노 행사에 수억원씩 퍼붓는 달성군의 대표 행사가 역사 적 사실이 왜곡된 관련행사와 다국어로 된 안내방송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맹폭을 가

실제 주민 K 씨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 전 부터 달성군내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으면서 도 쉬쉬했다"고 귀뜸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 입지라며 전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달성문화재단 역사 왜곡 그만해라

최근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모 일간지와 의 기자회견에서 "100대 피아노음악회는 국 내 최초의 피아노가 1900년 3월 26일 달성군 의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됐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발굴, 이를 최초로 100대의 피아노를 동원해 콘서트화한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높 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해 역사적 사실을 왜 곡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달성군의 이 같은 행태가 자칫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왜곡된 역사를 사실인양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달성군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 해서라도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이 달성 군 사문진이 아니다고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달성군민 L 씨는 "최초 피아노 유입이 부산 인 줄은 알았지만 이제라도 달성군민에게 알 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네프(Robert D, Neff)와 명지대 정성화 교수와 공동 출판한 'Korea throug western eyes'에도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 혔다.

올 한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청사안내 해설사 등 청사 종사원 60여명과 함께 조촐한 점심을 함께하며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죽은 박정희가 산 남유진을 경북지사 만들까?

남유진 구미시장 지사 출마선언 한강기적 이룬 박정희 정신 받아 낙동강 기적…경북 중흥 이룬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26일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선언에 앞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찾아 영정에 분향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꿈의 도백(道伯)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남 시장은 26일 경북도청 브리핑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선언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의 길을 따 라 경북의 혼과 정신을 지키고 경북 경제의 중흥과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 시장은 "경북의 주요 현안인 사드보상 문제와 포항·경주 지진 안전대책, 탈원전 대 책마련 등을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후 보수정 권의 핵심지역을 적폐의 본산이란 오명을 씌 웠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력을 이 어 받은 자신이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보수궤멸의 탄핵 때와 박정희 대통령 우표취소 때도 한마디도 못하던 정치 인들은 박 대통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경북

도백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경선후보 등록때 자기검증서를 제출 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시장의 이런 주장은 진보정권과 맞서 싸 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세력의 정치인들이 역주행을 해 지역 정서에 기대거나 따뜻한 안방만 차지하려는 행태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계승을 전면에 내세운 남 시 장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 당시 실무 책임자는 자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설치를 좌파가 끝까지 거부하면 포스코가 내 려다 보이는 영일대로 이전해 오겠다고 말한 사실도 알렸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 사 출마 선언에 앞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 가 추모관을 찾아 영정에 분향했다.

김성용 기자

잠자는 대구교통카드 잔액 58억 시민에게 환원

대구시, 투명 신뢰성 관리



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있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 58억원을 사 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한다.

시는 2013년 3억400만원, 2014년 3억300

만원 등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 랍 속에 들어있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충전선 수금도 사회에 환원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 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참여연 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공감 해 최근 금융위원회 질의를 통해 상법상 기준 으로 5년이 지나면 준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원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 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에 사용한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 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으면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은 보관 중인 카드가 있을 경우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잠자는 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 리를 위해 지정하는 공익법인을 통한 업무처 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건강의 최적온도



대구 정체성 담긴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속도 낸다

설계공모 통해 '온·景' 최종 결정

대구시는 대구대표도서관을 대구의 역사성



과 정체성이 담긴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건축 설계공모(2017년 10월 23일~12월 13일)를 통해 ㈜행림종합건축 사사무소의 '온·톥'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미군 부대의 역사성, 도시의 세련성, 공원과의 소통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입면디자인이 콘셉트로, 캠프워커 로 단절돼 있던 도시조직을 연계하고 '소통하 는 풍경'을 의미하는 '온, 景'의 개념을 통해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정보 창고의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를 생산하는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지난 60여년간 캠프워커로 인해 도시와 단 절돼 있던 공간이 공원으로 재탄생되면서 그 시작점에 위치한 도서관은 도시와 공원을 공 간적·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책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뿐 아니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한편, 대구대표도서관은 지난 2015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남구 캠프워커헬기장으로 입 지가 결정됐으며, 현재 시민토론회 및 자문위 원회, 시누리집을 통해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2016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행정자 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 기에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받았고, 2017년에는 근린공원인 대구평화공 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건폐율을 상향 조 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유사 문화시설을 건 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향후 2019년 상반기까지 기본계 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약 2년 간 의 공사를 통해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대구시는 도서관 개관까지 아직 많

은 진행 과정이 남아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간구성, 도서관 서비스 등이 우수한 전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건립하 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 최희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대구 대표도서관은 이번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대 구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살린 랜드마크로 건 립 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건축설계 단계부터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시민들에게 최고의 도서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8년부터 달라 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를 시 누리집에 게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 민원· 행정·문화,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5개 분야 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 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 구 감소 방지를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이 1 인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지원

또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종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0만원 에서 월 최고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됐으며, 납 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민원·행정·문화 분야는 쾌적한 화장실 환 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고, 취약 계층의 문화격차 해 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난 안전 분야는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 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를 개발 하려는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도 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또한,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 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 장 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최저 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 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 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내 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대구시 김형일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 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 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누리집(www.daegu. go.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 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대구 중구 골목투어 올해 200만 돌파 '최고'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김광석 사회적 관심 등 관광객 증가 원인 꼽아

대구시 중구의 골목투어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시 중구는 역사문화자원을 골목길로 연결한 '근대로의 여행'의 올해(1월 1일~12월 21일) 관광객 수가 200만781명으로 집계됐다 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 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북한 핵 여파로 외국 인들이 한국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 지만 중구의 관광객은 지난해(139만9072명) 대비 43% 증가했다.

중구는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와 김광석 다 시 그리기 길의 사회적 관심 등을 관광객 증 가 원인으로 꼽았다.

대구 근대로 야행, 여행사 연계 팸투어 코스 운영, 인기 TV 프로그램 '3대 천황', '배틀트 립', '불타는 청춘' 등의 출연도 관광객 증가에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관광불모지에서 올해

는 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속 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구시 중구는 따르면 역사문화자원을 골목길로 연결한 '근대로의 여행' 관광객 수가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0만781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겨울에도 식중독 조심하세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대구시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 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 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 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면역력이 낮은 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 스 감염이 증가(5건 100명) 하는 등 전국적인 통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유치원, 청소년수련원에서 12 건 38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체 환자 의 96%가 집중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 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 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대구 맛지기, 대구식객단을 찾습니다

오는 29일부터 1월 11일까지 대구음식누리집 온라인 접수

제9기 대구식객단은 70명을 위촉해 운영할 예정으로 제8기 식객단 중 활동실적이 우수 한 31명을 우선 선발하고, 39명을 신규로 선 발한다.

대구식객단 선발결과는 내년 1월 17일 대 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www.daegufood.

대구식객단으로 선발되면 대구 음식 홍보 와 맛집 정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니터 링 내용 등을 대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에 입 력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구 음식을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는 대구식객단원이 활동한 대구 맛 집 홍보활동 등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평가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과 식객단 초청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최우 수 활동자에게는 대구시장 표창도 수여한다.

한편, 그간 제8기까지 대구식객단이 추천한 맛집 1만6225개가 대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 에 등재돼 홍보되고 있으며, 매년 식객단 수 준이 향상되고 활동실적 또한 활발해 맛집 방 문후기 등록이 지난 한해 2885건이던 것이 올 해는 12월 26일 현재 4276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13개소의 초청행사에 참여해 업소를 모니터링 한 후 개선사항을 전달해 업소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내년 5월 4일까지 잔디광장 출입제한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은 잔디 월동 및 발아시기를 맞아 내년 5 월 4일까지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올해 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 을 제공코자 산책로를 포함해 잔디광장 전면 의 출입을 제한한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의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 어 부득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 휴식 월제 기간에 잔디광장에는 집중적으로 비료 주기와 병충해방제 제초작업 관수작업 등이 진행된다. 김진희 기자

대구시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 음식 우수성 홍보, 맛집 발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 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제9기 '대구식객단' 39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 지 2주간이며, 신청자격은 음식관련 개인 블로 그를 운영하는 18세 이상의 대구시민으로, 음 식누리집 대구푸드(www.daegufood.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o.kr)에 공지된다.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꿉니다

왜 통합이전인가? 지금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이제껏 노력했지만 K-2 군공항을 이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 '07년부터 K-2 이전을 본격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어려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드디어 '13년에 K-2 이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 13년에 득별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공항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결정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 K-2의 활주로, 유도로를 빌려 쓰고 있는 대구공항은 K-2가 이전하면 공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항의 주인인 정부가 16.811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은? 작은 종이에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구공항은 동남아권역 노선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6시간 이내의 동남아 노선만 가능하고 미국·유럽 노선은 물가합니다. 대구공항은 이미 수용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17년 연간 이용객 350만명 도달, 18년에는 375만명 초과 예상되지만,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주기장이 부족하고, 시간당 이착륙 가능횟수도 6회에 불괴하여 새로운 노선개설도 더 이상 어렵습니다.



새로운 공항의 위치는? 모두가쉽게갈수있는 가까운 경북에 들어섭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구공항이 건설됩니다. · 가까운 경북으로 이전하고 접근교통망이 완성되면 교통성체없이 디 쉽고 빠르게 공항에 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대구·경북 관문공항으로 건설합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1,000만명 항공시대를 대비한 충분한 시설로 건설하여 우리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공항이 생기면? 내륙의 갇힌 도시에서 세계로 열린 글로벌 도시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도시 입니다. · 대구·경북은 내륙의 닫힌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도시와 소통하고 경쟁할 때입니다.

K-2·대구공항이 통합이전 하면 대구·경복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규는 공항 종전부지(후적지)를 4차산업 역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합니다. • 경북에는 공항 배우도시 조성, 인구유인,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및 일자리 창술 등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동계올림픽 성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빛내다

경북3일차 안동 도착 경북도청 신도시 경유 문화유산 하회마을 세계에 재조명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가 봉송 56 일차인 26일 안동을 찾아 한국전통문화의 축 제속에서 성화봉송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1일 인천에 도착한 성화는 제주도, 경 상남도, 전라도, 충청도 등에 이어 영주, 봉화를 거쳐 경북도 일정 3일차 안동에 도착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밝힌 성화의 첫 주자로는 인라인스케이트선수였으나 올림 픽종목에 없어 아쉽게도 올림픽 꿈을 이루지 못한 우효숙 선수가 활약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속에서 시내 전역을 밝힌 성화는 오후 4시경 경북도청 신도시를 차았다.

도청구간 성화봉송은 특별히 권영세 안동 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의 성화봉 합동 점화 이벤트를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의 화합 의 장을 만들어내며, 시작됐다.

화합의 불씨는 경북경찰청, 풍천중학교를 지나 솟을삼문을 통해 도청전정으로 향했다.

도립국악단 판굿과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의 태권무 등 성화맞이 이벤트 속에서 도청직원 300여명이 함께 평창 성화봉송을 환영하고 대회 성공기원을 응원했다.

도청 마지막 주자로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은 신현수 경북도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활약했다.

경북도는 생애 단 한번 올까 말까한 특별한 동계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평창조형물 을 배경으로 도청전정에 포토존을 만들어 이 날 함께 한 모든 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봉송구간인 경북도 청사를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경북도의 많 은 노력과 온정을 느낄 수 있다.

도청 안민관과 동락관 전면을 감싼 평창 대형현수막, 수많은 가로기, 각종 평창조형물 등경북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동계올림픽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있다.

평창성화는 마지막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하회마을로 향 해되

청사초롱으로 수놓은 하회마을 입구를 들어선 성화는 양진당 뜰에서 양진당과 충효당종손과 유림 100여명의 환영을 받은 후 차전놀이와 함께 만송정 숲을 지나 아름다운 부용대 위에서 환하게 비추었다.

성화 불꽃은 안동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인 마크내퍼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에게 이 어졌으며, 성화봉송 축하행사가 진행되는 가 운데 많은 관람객들의 환호 속에서 임시 거치 대에 안치됐다.

성화봉송 축하행사장에서는 안동의 전통불 놀이인 선유줄불놀이로 수놓인 부용대의 아 름다운 절경을 무대배경으로 난타공연, 장승 퍼포먼스, 하회별신굿탈놀이, 올림픽놀이단 윗플 공연 및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등 다양한 축하행사로 성화봉송 과 성화안치를 축하하다

특히 이날 성화 안치시 선유줄불놀이 불꽃 과 오륜기 짚라인 하강 연출은 올림픽을 더욱 빛내는 특별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 게 했다

경북도민과 안동시민의 뜨거운 정, 그리고 경북안동의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연출하며, 보여준 안동시 성화봉송은 화려한 불꽃놀이 로 마무리 됐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도를 방문하신 422명의 성화봉송주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이희범 평창조직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며, "특히, 안동하회마을은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방문하고 2005년에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방문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을 통해 또 한번 안동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더욱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지닌 의미가 깊다. 남은 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문화를 담아가고 성화봉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다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북구간 성화봉송은 27일 구미에 이어 1월 1일 포항, 2일 경주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 김용구기자

경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닻 올려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 선도할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포항유합기술산업지구내 2905억원 투자, 신약개발 연구

경북도는 26일 도청 화랑실에서 송경창 창 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문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기 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준 공됨에 따라 세계 신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 보하고 지역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김관용 지 사 주도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지방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및 과학기술전략연구소와 함께 진행해 왔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포항융합기술산업 지구에 총 2905억원을 투자, 4세대 방사광가 속기를 활용해 세포막단백질을 연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연 계해 기존의 신약단지와는 차별화된 기반 신 약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3대 연구거점으로 Δ세포막단 백질연구소 Δ가속기신약연구소 Δ비즈니스 융복합센터를 건립하고 3대 기반시설로 동물 대체시험평가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신약중 심연구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신약개발과는 다른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를 활용해 신약개발 세포막단백질연구에 특 화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신약개발 연구는 세포막단백질 연

구가 신약개발에서 약물 표적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었지만 기술적인 한계 로 연구가 불가능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3차원적 입체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포막 단백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이러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막단백질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 연구를 비롯해 막단백질 특성 및 기능 연구, 제품개발 등 응용연구 등을 수행 할 계획이다.

독일 등 신약개발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대표아이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을 설계하는 '가속기신약연구소'도 설립한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10~15년,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가속기신약연구소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 혁명 구현기술을 활용해 6대 질환(암질환, 심 혈관, 감염성질환, 뇌질환, 대사성질환, 희귀 질환)과 관련된 신약설계를 가속화하고 글로 벌 수준의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다는 계획 이다

특히 희귀질환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암질환, 당뇨질환 등 연구가 활발하고 수익성이 높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활동이 미약한 분야이기에 공익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학연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연구중심기 업 육성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수 준의 연구공간인 '비즈니스융복합센터'도 건 립한다.

비즈니스융복합센터에서는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가속기신약연구소로부터 도출된 후 보물질, 플랫폼 기술 등 기존 신약연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연구결과, 기술 등을 지원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초지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존 신약개발단지와는 다르게 국내신약단지에서는 연구가 어려웠던 세포막단백질 분야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입체적 막단백질 연구시스템을 구축 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료 축적 및 신약개발 효과를 극대화 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 조성된 대구 첨단복합연구단지 등 신약단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줄기세포, 인공장기, 가상현실 등을 활 용하는 동물대체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해 기존 신약단지의 동물임상시험시스템과 역할분담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아울러 용역결과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위한 '가속기 활용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개 발특구 지정과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구 기자

김장주 행정부지사 종사원들 노고 격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구 내식당에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청사안 내 해설사 등 청사 종사원 60여명과 함께 조 촐한 점심을 함께하며,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원경찰은 1일 3교대로 24시간 365일 쉼 없이 청사 방호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은 부지 245천㎡와 건물 연면적 143천㎡의 광범위한 규모의 내·외부 청소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사안내 해설사는 방문하는 내방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청사 방문의 추 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밝은 미소로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함께 자리한 환경미화원 모씨는 "도청 이전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줘서 감사드리며, 청소를 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도청을 관리하는데 나도 한 몫 한다는 뿌듯함도 있다" 며, 즐거워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또 한 올해신청사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과 민 원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다"며, 따뜻한 격려와 고마 움을 전했다.



경북고향장터-



하늘과 땅 그리고 농부들이 권합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하늘의 햇살과 땅의 싱그러움을 담아 정직한 농부들이 재배한 품질 좋고 우수한 경상북도의 농·수산물을 중간유통 단계없이 직거래로 소비자와 연결해주며 경상북도가 운영하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우리 먹거리 장터입니다.

1644-4245

소비자와 생산농가 직거래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논란'

한림대 성심병원 이어 대구가톨릭대 병원서도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최근 한림대 성심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 대 병원에서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고 간 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 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간호사들 이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신부 님 앞에서 캉캉을 추고 EXID 위아래 춤을 췄다"고 했다.

병원 측은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는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 테니 춤을 춰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측이 이사를 할 때도 간호사들에게 이삿짐을 옮기게 하는 등 사적인 업무지시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A 씨는 "사적인 임무와 초과근무 등을 했지 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수당, 연차수당도 받 지 못했고 병원 측은 임금 규정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병원이 필요한 일이면 다 해야 하는 비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장기자랑의 경우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인 데다 사적인일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은 2015년 병원 비전 선포식 행사와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의 사진으로 보인다"면서 "확인 결과 강제로 장기자랑을 지시한 일은 없었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회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신부 사택을 옮길 때 이삿짐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이사를 할 때도 개인 소지품 등만 직원들이 옮겼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에도 동일 한 SNS 페이지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야간근로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내용 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 간호사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 인돼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병원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진희 기자

박인규 DGB금융 회장 '보복 인사' 논란

등기임원 3명 퇴진 결정 임원 12명 중 9명 교체

DGB금융그룹은 26일 임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제외한 등기 임원 3명의 퇴진을 결정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사 퇴 압박을 받은 박 회장이 자신을 제외한 등 기 임원을 해임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구은행 부행장보, 지주 부사장보 이상 임원 12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불발비자금

4인규회장

노성석 DGB금융지주 부사장을 비롯해 임환 오 대구은행 부행장, 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 등 지주와 은행 등기임원 3명은 모두 퇴임한다.

이들 3명은 지난해 DGB금융 회장후보추천 위원회에서 박 회장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보복성 인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장영철 DGB금융지주 부사장보 겸 대구은 행 부행장보, 문홍수 DGB금융지주 부사장보, 김경환·윤이열·성석기 대구은행 부행장보 등 주요 경영진도 물러난다.

비자금을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행이었던 만큼 자신을 제외한 등기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 린 인사 조처다.

앞으로 해임된 임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은행 조직 내 갈등이 심화할 것이 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비자금 사건 폭로 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박 회장을 빼고 등기 임원 3명 전원이 물러났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에서 박 회장의 경쟁자를 없앴다 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경찰 수사로 압박을 받아 온 박 회장 주변에서 '호위무사'로 나선 일부 임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승진해 '보복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임원 3명이 승진 대상 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 모교 상고 출신 임원 6명도 이번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 융환경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 을 둔 정기 인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 복지시민연합 3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박인규 회장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진희 기자

대구 시내버스 연말 급행 5개 노선 연장운행

연말 29~31일 3일간 최대 새벽 1시 30분까지 운행

2017년 연말 시내지역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내지역에서 관내 주요지역을 운행하는 급행 5개 노선(1, 2, 3, 5, 6)에 대해 시내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익일 새벽 1시 30분(29~30일 새벽 12시 30분, 31일 새벽 1시 30분)까지 30분 배차간격으로 연장운행한다.

올해 연말인 오는 29일에서 31일은 야간 유 동인구가 집중되는 금, 토, 일요일이며 특히 31일은 2017년 제야의 타종행사가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연계해 추진됨에 따라 시내지역에 심야시간대까지 많은 시민 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 시내지역의 심야시간대 대 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급행1, 급행 2, 급행3, 급행5, 급행6번의 5개 노선에 대해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한시적으로 시내버 스 연장운행을 시행한다.

특히, 31일은 제야의 타종행사가 익일 새벽 1시경까지 진행돼 시내버스와 함께 도시철도 1, 2호선이 반월당역을 기준으로 새벽 1시 40 분까지 연장운행하고 도시철도 3호선은 명덕역을 기준으로 새벽 1시 55분~1시 59분으로 연장운행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은 현재 시 내지역에 정차하는 정류소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중 급행1, 급행3, 급행5, 급행6번 노선은 오는 31일에 제야의 타종행 사 교통통제로 일부구간 우회운행하나 가까 운 2.28기념중앙공원 정류소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장운행에 대한 안내는 두드리소 (053-120) 및 버스운영과 상황실(803-4851~4853), 교통상황실(803-4731)로 문의가 가능하며, 시누리집(http://daegu.go.kr) 및 노선안내누리집(http://businfo.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한의사 '덜미'

대구 시민단체가 26일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 당과 허위로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3) 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알고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한의사 B(4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실현 / 대구왕이면대 / 우리복지시반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지난 8월 18일까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고의로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면 좌회전해 사고를 내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5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B씨는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16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작성 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일 당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아 합의했 다"며 "A 씨와 B 씨가 금전적으로 공모한 부 분은 없어 보이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쓰기. 박광덕 기자

구미 양계장서 불… 10시간 25분만에 꺼져

구미시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시간 25분 만에 진화됐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35분께 구미시 고아읍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비닐하우스로 된 양계장 5개 동 중 3 개 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 인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고물상 건물, 헌 옷과 폐지 등을 태워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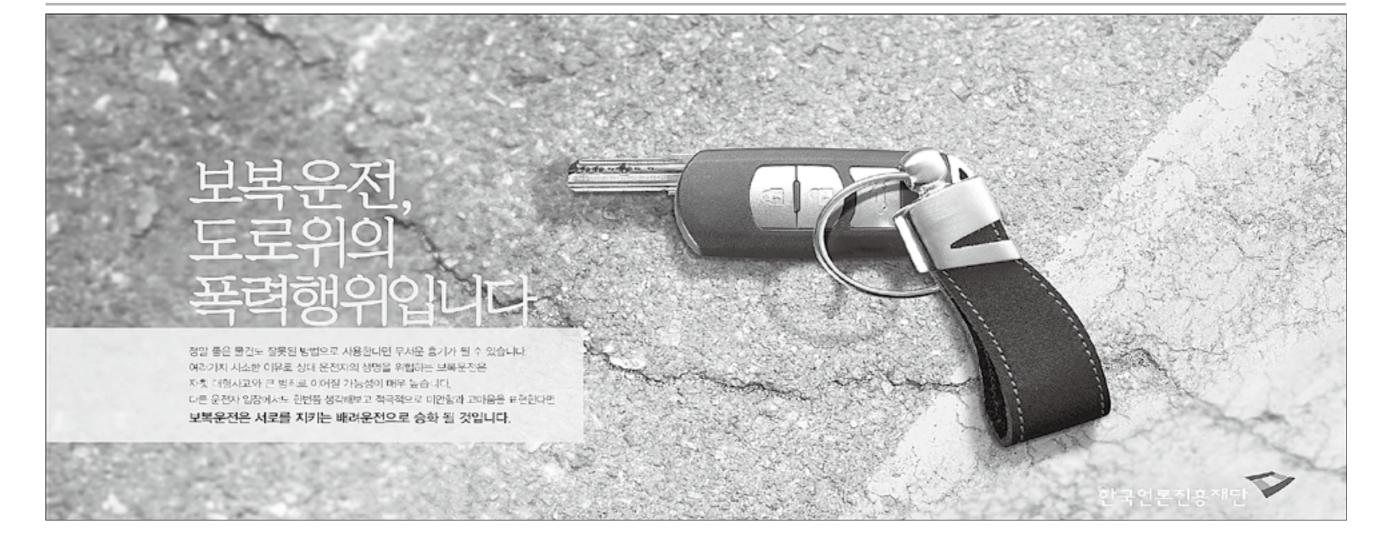
불이 나자 구미소방서는 소방차 19대와 소 방관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 였다.



지난 25일 오후 5시35분께 구미시 고아읍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비닐하우스 양계장과인근에 샌드위치 판넬로 된 고물상 건물을 태웠다.

난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잡혔지만, 인근 고물상에 쌓여 있던 헌옷더미에 옮겨붙은 불이꺼지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빈 양계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은진 기자







정부 강력규제에도 분양폭탄 계속

내년 41만7000가구 대구 1만6567가구 경북 1만2662가구



내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시행되지만 분양물량은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민영아파 트 분양 규모는 전국 409개 단지에서 총 41만 7786가구에 이른다.

올해는 황금연휴·조기대선·부동산규제 등 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에 잦은 혼란을 겪

으도 선절자들이 운영결성에 젖은 본단을 겪었다. 예정물량이 실적으로 채워지지 못해 이월

되면서 올초 계획보다 적은 물량이 공급됐다. 2018년은 예년(5년, 2013~2017년) 분양실 적 물량(30만7774가구)과 비교해 약 36%(11 만12가구) 많은 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분양시장이 호황기였던 2015년 분양 실적(43만4384가구)과 맞먹을 정도로 계획물 량이 많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미분양 리스크를 겪고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규제·신DTI 적용·금리인상 등으로 수요가 위축돼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23만5430가구·지방 18만235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선 13만9257가구가 공급되며, 과 천시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과천 주공아파 트 재건축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연기 된 탓이다.

이밖에 △서울 5만7208가구 △인천 3만 8965가구로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이 4만5158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집계됐다.

이어 △충남 2만2068가구 △경남 1만7962 가구 △대구 1만6567가구 △광주 1만5408 가구 △강원 1만3791가구 △경북 1만2662가 구 △울산 9116가구 △대전 8927가구 △충북 8887가구 △세종 5504가구 △전남 3297가구 △전북 3009가구 순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등으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졌다"며, "2018년은 지역별로 청 약결과가 갈리는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덕기자



26일 의성군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가 김준상(왼쪽) ㈜대건레미콘 대표에게 '2017년 올해의 기업 선정패'를 수여하고 있다.

의성군 '올해의 기업' ㈜대건레미콘 선정

김준상 대표, 지역인재 양성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 앞장

의성군은 '2017년 올해의 기업'에 ㈜대 건레미콘(대표 김준상)을 선정했다.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대건레미콘은 1999년 11월 다인농공단지에 입주했다. ISO 품질인증 획득, 지역내 근로자 채용 및 창의적인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한몫하고 있다.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기탁은 물론 2000 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 이상을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양 성과 불우이웃돕기도 앞장서 왔다. '올해의 기업'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친기업 정서 확산으로 기업유 치 촉진과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은 신안상사, 작년에는 ㈜환승공 조가 선정됐다.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운 전자금 지원한도 우대,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고용보조금 지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 원 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수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및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내년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노반공사 착공

한국철도시설공단

3조7301억예산 두입 도담-안동구간 복선 안동-영천구간 단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 1월부터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의 노반공사에 본격적으로 나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도담-영 천 복선전철사업은 총사업비 3조7301억원이 투입된다. 총연장 145.1km에 이르는 선로를 고속화·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도담-안동 구간은 복선, 안동-영천 구간은 단선으로 계획됐다.

안동-영천 구간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2011년 12월) 시 단선전철 개통 후 수요증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오는 2036년에 맞춰 복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 됐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얻어 노반공사는 우선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상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올해까지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반공사 를 실한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시속 250km/h 열차가 투입돼 현재 4시간39분이 소요되는 청량리-영천 구간을 1시간50분만에 이동(2시간 49분 단축)할 수 있어 경북 내륙지역 경제, 문화,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다.

이수형 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로 철도건설 효율성을 극대화해 완벽한 품질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봉사가 국민들 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 티은하 기자

LH,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32곳 본격 착수

포항 최첨단 스마트 기술 활용 시민 행복한 스마트 도시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총 68곳 중 32곳의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시범사업은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8곳이 선정됐다. LH는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로 총 32곳에 참여하게된다.

LH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

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화 자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복합단지로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전망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 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 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와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 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한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대구점 메디쉴드 목견인기

항균 처리된 원단 사용 오래 써도 세균오염 덜해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츠려 들어 근육이 경직되기 마련 이다.

이때 근육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뭉치게 되어 잦은 근육통이 찾아올 수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9층 생활가전 매장에서 는 몸의 회복과 목의 뭉친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휴대용 마사지 기구를 찾는 소비자 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점 8층에 위치한 헬스&뷰티전문 파나소닉 매장에서는 목에 두르는 모양의 목전용 마사지기인 '메디쉴드 목견인기CT-1000'을 추운 겨울철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찾는 고객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목견인기 CT-1000' 제품은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탈출증과 현대인의 '고질병'인 거북목 증후군 등 목(경추) 관련 질환의 증상 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로 착용 했을 때 목을 똑바로 펴준다.

탑재된 5단계 진동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면 목·어깨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사용 시 공기를 주입해 쓰는데, 수동이 아닌 버튼 터치로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하다.

항균 처리된 원단을 사용해 오래 써도 세균 오염이 덜하다.

차량용 케이블이 포함돼 장시간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 완충 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한 번 완전 충전하면 90분정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점 파나소닉 숍매니저는 "충전타입이라 휴대가 간편해 캠핑 또는 여행지에서 뭉친목 근육을 푸는 데 좋으며, 진동모드는 다섯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백화점 대구점 8층 가정관 파나소 닉 매장 에 입점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무 료 제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은 27만 9000원이다. 김진희 기자



롯데백화점 대구점 8층 생활가전관 '파나소닉' 매장에서 겨울철 목에 뭉친 근육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풀어줄수 있는 휴대형 안마기 '메디쉴드 목견인기CT-1000'를 선보이고 있다.

대구지역 내년 건설공사 규모 6조2000억 이상 전망

대구시는 내년에 지역 내에서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가 6조2000억원 이상이 될 것 이라고 26일 전망했다.

대구시는 내년 신규 착공예정인 공공건설 공사(공사비 1억원 이상)는 568건 8431억원 으로 올해 667건 8644억원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정부의 SOC예산 감축정책에 따라 공 공건설공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 으나 전년 대비 감소 규모는 2.5%가 감소한 213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사업승인 등 인· 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준비 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는 35개단지(2 만4592세대)에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000㎡ 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는 4000억원 이 상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다만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9

월 발표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등 여 러 가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착 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 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용적률 인센티브(15%)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감소된 공공공사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Δ공공 건설사업 신속집행 Δ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우선 시행 Δ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이상)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상하 기자

공정위 "못받은 하도급금 신고하세요"

대구·경북권 등 5개 권역 10곳 신고센터 설치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하 도급 신고센터'가 26일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 동안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5개 권역에서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되셨어. 수도권에서는 기존 공정위의 지방사무소 외 에 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협회, 중소기업중 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서도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46일과 47 일간 운영됐던 신고센터는 186건 284억원, 156건 274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끌어 내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해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시키지 말고 설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최우선"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 원활한 재정집행·지역경제 활력

경주시가 2018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 정 주요업무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일정에 돌 입했다.

시는 탄탄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기반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경비 투 자확대, 인구 증가,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26, 27일 이틀 간 대회의실에서 '2018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첫날인 26일 이른 오전부터 문화관광실, 왕 경사업본부, 보건소 등 11개 부서의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 센터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튿날인 27일에는 도시개발국, 맑은물사 업본부의 보고에 이어 오후에 시민행정국, 공 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감사관 소 관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보고회는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 응사업 발굴, 내년도 국도비 선제적 대응, 민 선6기 공약사업 추진 및 신규시책 발굴 등 260여개의 부서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역점사업에 대한 부서 간의 업무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필두로 경주고 도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강소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부자경 제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다양 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논의됐다.

특히,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른 오전 7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매년 1월 중순에 진행하던 주요업 무보고회를 한달가량 앞서 시행함으로써 기 존 추진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추진 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조기



발주를 통해 원활한 재정집행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양식 시장은 "2018년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 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

는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도적적인 신 규사업 구상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31일 신라대종공원서 '제야의 종' 타종

25년만에 시내권 타종행사 국태민안 기원 시민 대화합

경주시가 오는 31일 저녁 9시부터 신라대 종공원에서 '2017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갖

1992년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제야의 종 타종 이후로 시내권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로는 무려 25년 만이다.

1200여년전부터 서라벌을 울려온 성덕대왕 신종의 웅장한 울림과 예술적 가치를 그대로 재현한 신라대종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천년 도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역사적인 타종 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저녁 9시 시민콘서트를 시작으로 제 야의 종 타종식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지역 자선공연단체인 하늘호, 관악동호회 경주빅 밴드, 앙상블 쉼, 감포고등학교 방과후합창단, 동국대와 한동대 비보잉 공연을 비롯한 초대 가수 공연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타종식 본 행사는 신라고취대 행렬과 공연 을 시작으로 정순임 명창의 판소리 공연, 타



종 기념시 낭송, 경주 10대 뉴스와 새해소망 영상, 500인 경주시민 대합창에 이어 64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해 총 33회의 타종이 거행된 다. 타종과 동시에 레이져쇼, 불꽃놀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소망과 염원을 담아 만든 2000 여개의 LED 소망풍선을 날려 제야의 밤 하늘 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경주문화재단, 경주시립합 장단, 경주음악협회를 중심으로 경주시민 500 여명이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노래로 하나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봉황대 앞 잔디광 장에서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올 한해 뜨거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야간문 화콘텐츠로 도약한 봉황 프리마켓 행사를 비 롯해 새해소망 가훈쓰기, 연만들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과 떡국, 어묵탕 등 먹거리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최양식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 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 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새롭게 탄생한 신라대종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엇 보다 뜻깊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 는 성덕대왕신종의 발원을 이어 담은 신라대 종의 큰 울림으로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최종점검

이강덕 시장 주재 보고회 방문객 안전 등 준비 만전

포항시는 26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 내 대표 해맞이 축제인 제20회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종 준 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최종점검의 자리를 마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조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방문객들이 포항 호미곶에서 새해의 희 망찬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전국에서 보내준 따뜻 한 정에 대한 신년 감사인사를 전하는 대형 퍼포먼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무술 년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형연 날리기 시 연 행사 등을 추가해 보다 내실화된 프로그램 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상황실을 구성 해 축제기간 중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오는 30 일 관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최종 현장 안 전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산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대책에 대해 발표하면 서 △가금류 신규입식 금지조치 △사전 소독 활동 △방역물품(생석회, 소독약품, 방역용 발 판매트 등) 지원 △행사 후 소독활동 등 축제 개최 전부터 종료 후 방역대책까지 수랍해 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채화행사, 1만명 떡국 나눔행사 진행상황 등 연계프로그램 및 축제홍보, 임시주차장 조성 등 축제 전반에 걸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 축전이 안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각 부서 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미곶의 빛, 세계를 밝히다'의 주제 로 펼쳐지는 제20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은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된다. 강동진 기자

포항 남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상

경북지사 표창 수상 총 140회 3400여명 교육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22일 경주 코모 드호텔에서 '2017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 업 성과대회'에서 경북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역주민,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연중 순회보건교육, 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해 아토피·천식 예방교실을 140회 3400여명에게 교육함으로써 아토피천 식 예방관리에 앞장섰다.

올해 안심기관 77개소 운영과 지역아동센 터 등 순회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아토피 진 단 설문지 선별검사 5200명도 실시했으며, 찾 아가는 인형극 공연 등으로 총 7회 2355명에 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아토피예방관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 홍보했다.

한편, 아토피 유소견자에게는 아토피예방 비누, 보습제 및 수분섭취를 위한 물병 등을 제공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건강박람회, 불빛 축제 등 각종 행사시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 리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

남구보건소 이영희 건강관리과장은 "취약 계층, 다문화가정, 세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의 료비지원사업과 아토피·천식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동진 기자

일진-일진베어링, 희망나눔 성금 2천만원 기탁

일진그룹 내 경주지역업체인 ㈜일진(대표 이사 이경수)과 ㈜일진베어링(대표이사 하정 환)은 2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 운 이웃을 위한 '희망2018 나눔캠페인' 성금 2000만원(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일진그룹은 자동차부품사업장으로 경주에 ㈜일진, ㈜일진베어링과 ㈜일진글로벌이 있 으며, 휠베어링, 로드, 링크, 도어체크 등 자동 차 핵심부품을 생산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 할을 하고 있다.

일진그룹은 2011년부터 매년 2000만원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며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일진베어링 하정환 대 표와 일진 정대영 공장장은 "경기불황 속에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선도해 직원 모두 나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나는 소외계층을 위해 임직원 모두 앞장서서 매년 봉사활동 및 기부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 지역과 동행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용찬 기자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왕고·구독안내 (053)257-0000

영양군, 심뇌혈관질환 6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양군이 경북도 2017 심뇌혈 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평가 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심뇌혈관질환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을 수행했다. 건강위험 요인을 가졌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강취약계층인 젊 은세대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SNS 활용 홍보, 영화관 광고, 인증샷 행사 등 젊은 세대의 참여와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영삼 영양보건소장은 "내년 에는 군민 모두가 스스로의 혈관 나이를 알고 적정 관리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환을 막 는데 보건소가 앞장선다"고 말 했다. 권윤동기자

영해교회,소외계층 라면 100박스 기탁



영해교회 교우 일동은 지난 22 일 영해면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영해교회 교우들은 지난 2015 년에도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를 돕고자 수술비를 후원하는 등 다 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해오 고 있다.

김성구 목사는 "작은 정성이 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김승건 기자

명삼사, 성금 100만원 기탁



대한불교천태종 명삼사는 지난 22일 희망2018 나눔계몽 운동 성 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명삼사 주지스님은 "이번 성금 은 명삼사 신도회원들이 십시일 반 모은 것으로 소외된 이웃들에 게 작지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을 위해 쓰여 진다.

들 위에 쓰여 진다. 명삼사는 지난 5월에도 1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김승건 기자

한겨울 반가운 겨울 왕국 봉화 분천역·청송 얼음골

"추위야 맞서 싸우자"… 관광공사 1월 추천 여행지

한국관광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 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동계레포츠 즐기기'라 는 주제 아래 2018년 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5 개 지역 관광지를 각각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관광공사의 1월 추천 여행지로는 한겨울 반 가운 오지의 겨울 왕국인 봉화 분천역과 청송 얼음골이 뽑혔다.

Δ서울 도심에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코오롱 등산학교 실내 빙벽장', '시청광장 스케이트장'(서울) Δ차가운 겨울 뜨겁게 즐길 수 있는 산정호수 썰매, 의정부 실내 빙상장(경기) Δ사색 눈꽃 트레킹 vs 짜릿한 빙벽 등반 오대산 선재길, 춘천 구곡폭포 (강원도) Δ남도의 겨울 레포츠 즐기는 광주 실내빙상장,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광주시) 등이 포함됐다.

■겨울 왕국…봉화 분천역과 청송 얼음골

한겨울에는 폭폭 연기 뿜고 달리는 기차 여행이 제격이다.

경북 내륙의 첩첩산중 승부역으로 가는 기차 에 올라보자.

눈이 오면 금상첨화다.

톡톡 차창을 두드리는 눈이 내려앉으면 세상은 겨울 왕국으로 변신한다. 분천역에 도착하면 무조건 내리자. 핀란드 로바니에미 클로스 마을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도 분천역 산타 마을이 있다.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와 기념 촬영하며 동심으로 돌아간다.

한겨울 청송 얼음골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얼음골이 꽝꽝 얼어붙으면 갈고리 같은 아이 스바일을 손에 들고 크램폰을 발에 차고 빙벽을 오른다.

해마다 1~2월에 열리는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 세계 '빙벽 스파이더맨'이 총출동해 얼음골을 달군다.

청송의 명소인 주왕산 대전사, 청송수석꽃돌 박물관, 객주문학관도 둘러보자.

문의 봉화군청 문화관광과(054-679-6353), 청송군청 문화관광과(054-870-6240).

■스케이팅에서 빙벽 등반까지…

찬 바람이 볼을 에는 듯한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말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레포츠로 추위를 이겨보자.

미끄러지듯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팅이나 컬링, 빙벽 등반 등을 배우고 즐기다 보면 어느 새 움츠렸던 몸이 풀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연간 15만명이 다녀가 는 대표적인 실내 스케이트장이다.

400m 링크를 질주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과 나 란히 스케이팅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년 만에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 심 속 낭만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기네스북에 오른 높이 20m 실내 빙벽장을 찾아 새로운 겨울 레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 태릉선수촌 인근 볼거리도 놓칠 수 없다.

서울 태릉과 강릉, 구 화랑대역은 고즈넉한 겨울 정취가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문의 노원구청 문화관광과(02-2116-3776).

■차가운 겨울, 뜨겁게 즐기자

추운 겨울을 신나게 보내는 방법은 겨울 축제 에 온몸을 던지는 것.

산정호수에서 드넓은 호수 위 썰매를 즐기고, 포천백운계곡동장군축제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타보자. 짜릿한 겨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겨울 스포츠에



청송 얼음골

도전하고 싶다면 의정부실내빙상장을 추천한다. 누구나 얼음 위 스릴 만점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를 탄 뒤에는 먹거리 가득한 제일시 장으로 가자. 넉넉한 시장 인심이 추위를 따듯 하게 데워준다.

우리 술 박물관 산사원에서 옹기종기 모인 술 독을 만나고, 독특한 매력을 내뿜는 아프리카예 술박물관에 들러보자.

몸도 마음도 꽉 찬 겨울 여행이 될 것이다. 문의 포천시청 문화관광과(031-538-2114), 의정부시청 문화관광과(031-828-2693).

■사색 눈꽃 트레킹 vs 짜릿한 빙벽 등반

겨울 강원도는 눈과 얼음의 향연장이다.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 평창에서는 오대산 자

동계올림픽의 수 무대 평장에서는 오대산 자락 선재길 눈꽃 트레킹이 눈부시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은 예전 스님

들이 오가던 숲길로, 쉬운 등산로가 약 9km 이 어진다.

계곡 따라 난 선재길은 겨울이면 눈이 고요함 을 더한다.

선재길 산행은 세 시간 남짓 걸리며 섶다리, 출렁다리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동행이 된다. 춘천 구곡폭포는 아찔한 빙벽 등반으로 추위 를 제압한다.

봉화산 자락의 구곡폭포는 높이 50m 빙폭과 대형 고드름이 압권이다.

겨울이면 폭포에 로프가 걸리며 '스파이더맨' 들이 빙벽 등반에 도전한다. 전망대에서 폭포를 지켜보기만 해도 짜릿함이 전이된다.

평창에서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진부전통시장, 평창송어축제에 들러볼 만하다. 춘천에서는 동심을 자극하는 토이로봇관, 김

유정문학촌이 반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문의 월정사관광안내소(033-330-2772), 춘

천시청 관광개발과(033-250-3003).

■남도의 겨울 레포츠 즐기기…

20년 전 문을 연 광주실내빙상장은 봄여름가 을겨울 언제나, 남녀노소 누구나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다.

일 년 내내 영하로 유지되며, 1830㎡ 필드와 30×61m 규격 트랙을 갖췄다. 최대 500명 이상이 동시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고, 붐비는 편이아니라 여유 있는 스케이팅이 가능하다.

맑은 하늘 아래 스케이팅을 즐기고 싶다면 광 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 좋다.

2013년부터 해마다 겨울이면 광주광역시청 앞 문화광장에 들어서는 스케이트장은 내년 1 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빛고을 광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여행지가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이다.

한너울한복체험관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5·18기념공원을 거닐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5·18 민주화 운동에관해 이야기 나눠도 좋을 듯하다.

문의 광주실내빙상장(062-380-6880), 빛고 을콜센터(062-120). 김용구 기자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당나귀 꽃마차 체험을 하고있다.

경산시, 청색기술산업 중심도시 건설 박차

경산 압량면 5만평 규모 청색 기술특화단지 구축 5년간 1576억 예산 투입

경산시가 꿈꾸는 청색기술산업의 중심도시 장밋빛 청사진이 나왔다.

청색기술은 경산시의 핵심전략사업이다.

경산시는 지난 21일 경북도 대구청사에서 경북도, 청색기술자문위원회, 기업체 대표,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색기술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청색기술산업을 경산시와 경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인 전략과 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해 1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과학 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수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을 보면 압량면에 조성 예정인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5만평 규모의 청색기술특화단지를 구축하고 단지 내에 청색기술 R&D부터 산업화 실증까지산업전반에 걸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색기술 융합산업화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터 3000평, 연면적 3400평,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다.

사업비는 5년간 국비 942억원을 포함, 총 1576억원을 쏟아붓는다.

청색기술융합산업화센터와 그에 따른 장비구 축에 772억원, 구조·재료 부품사업화 기술개발, 바이오융합소재사업화 기술개발, 환경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총 20개 기술개발에 200 억원,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업 등에 604억원을 투입한다.

청색기술융합산업화센터는 청색산업기반실, 재료기술실, 섬유바이오융합 기술실, 환경에너 지융합실 등 조직에 연구·장비지원·행정 등 70 명의 인력들이 근무하게 된다.

청색기술융합산업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276억원, 부 가가치 유발효과 615억원, 취업자 유발효과 10 억원 당 1211명을 제시했다.

경산시는 이날 제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세부내용을 검토·보완한 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호진 경산부시장은 "청색기술산업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장 기반구축과 사람중심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영역으로 경산지식 산업지구, 경산일반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 으로 청색기술산업을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말했다.

청색기술산업은 현재 세계시장의 10%에 불과한 태동기 산업이지만 미국 컨설팅 기관인 FBEI는 2025년까지 시장규모 1조달러를 예상하는 등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청색기술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 성하고 있다. 변창상 기자

전기차 운행 가장 편리한 '울릉군'



3개월 만에 충전기 100대 설치 민간충전사업자 적극유치 성과

울릉군이 일주도로변과 주거지 일대에 100여 대의 충전기를 설치했다.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전기차 구입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군은 올해 전기차 142대를 민간에 최초 로 보급했다. 군은 민간충전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공공급속충전기 22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충전기 밀도는 0.9km라당 1기로 단일면적 기준 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정에서 충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울릉군에서는 환경부의 '홈충전 기' 사업을 적극 안내, 총 80대를 설치했다.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는 22일부터 이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에서는 '탄소제로, 청정에너지 녹색섬' 조성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2세대 전기차가 출시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내년 상반기에 우선 60대를 보급하고 하반

기에 추가 물량을 확보, 전기차를 확대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승용차량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내년에도 전기차 최대 보조금 지원 은 물론 충전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윤환 기자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가 울진에 떴다

울진군, 매화만화 도서관개관 이현세 벽화거리 조성 준공식

울진군은 26일 매화작은도서관 광장(매화면 복지회관 앞)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매화만화도서관 개관 및 이현세 벽화 거리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된 매화만화도서관과 이현세 벽화거리는 쾌적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마을 담장을 8·90년대 대표 만화가인 우리지역 출신 이현세 만화가의 대표 작품들로 이야기해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사업자 공모사업에 선정, 추 진하게 됐다.

기존에 있던 매화작은도서관을 새단장하고 작은도서관 옆에 만화도서관을 개관했다.

매화면사무소 앞 벽화거리 안내간판으로부터 복지회관 앞까지 담장을 끼고 총길이 250m, 50 컷의 작품들이 관광객과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 를 하고 있다.

이날 개관 및 준공식은 울진연예인협회 소속 7080팀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만화도서



관 개관식, 이현세 벽화거리 준공에 따른 벽화 서명식순으로 진행됐다.

대화1리 새마을(부녀)회의 봉사로 주민 화합의 장이 펼쳐져 행사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달궜다.

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출신 유명한 이현세 만화가의 작품으로 만화도서관과 벽화거리를 조성한 곳이 울진군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서 전국 최고의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킴은 물론, 명품 울진 조성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구미 김천 영천 고령 군위 성주

철곡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칠곡군,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대상'



칠곡군은 26일 '2017년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는 경북 23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 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칠곡군은 새마을운동 중점시책 6개 분야 16개 항목 28개 지표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아라토 마을회관 준공 및 티그라이주와의 MOU체결하고 사랑나눔 실천 등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으며 생필품 전달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비롯한 모든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 장애등급제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 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 유일하게 구미시가 선정됐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변화에 적 극 참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장애등급제 시범사업은 경북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이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가져

영천시가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홀몸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에 게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공급해다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에서 선정한 32가구에게 1세대 당약 2톤씩 지난해보다 20여톤 증가한 총 60톤의 땔감을 전달했다.

사랑의 땔감은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를 장작용으로 자른 것으로 1가구당 1~2톤 정도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투입해 수요 가구에 차량으로 직접전달한다.

'사랑의 땔감나눠주기' 행사는 2008년 시작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화목 보일러 공급이 확대돼 땔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ᆻ니. 최은하 기자



구미시, SK실트론 4천억 투자유치

경북도-구미시-SK실트론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북도와 구미시는 26일 경북도 대외통상교 류관에서 김관용 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변영삼 SK실트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실 트론과 투자금액 4000억원, 신규상시고용 150 명 등을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핵심 기초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반도체 고객의 공정 미세화 전환에 맞춰 제품 대응력을 강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00mm 웨이퍼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기록했던 SK실트론은 앞으로 매출액 1조원 돌파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퍼는 자동차, 인공지능, 전자제품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을 이끌어 갈 스마트폰 고도화, 자율주행차, 사 물인터넷 등의 신규시장 창출로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

SK실트론이 신규 투자에 나선 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웨이퍼 시장도 호황을 맞았



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시장 기관들 또한 글로 벌 웨이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되 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와 관련 SK그룹은 올 8월 LG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SK실트론이 지속적인 투자를통해 국내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고객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의 새로운 파트너로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를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아울러 글로벌와이퍼 시장에서 SK실트론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미시는 2017년 8개사 8239억원의 투자양 해각서 체결을 포함, 총 9992억원의 투자로 민 선 4기(2006년) 이후 지난 10년간 16조2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최우수 기관

영천시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경 북 최우수 기관임이을 입증했다.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경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천시 보건소는 2017년 한해 동안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6개소를 운영해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교육지원,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 설문조사, 천식 응급키트와 홍보물품 지원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인형극 '깔끔맨과 간질간질 마녀', 아토피·천식 힐링 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알레르기 질환 관련다양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교육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지식수준 향상은 물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 25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 으로 사업 실적과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 했다

조명재 영천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힘쓰겠 다"고 말했다. 최은하기자

고령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최우수상'

고령군은 지난 22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 린 경북도 '2017년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군단위 단독으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 상했다.

알레르기 질환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알레르기질환 안 심기관 및 참여학생 비율, 치료율과 결석률, 교육·홍보실적, 우수사례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관내어린이집 전체가 안심기관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최우수 기관상과 함께, 아토피 예방 그림일기 공모전에 참가한 이예린 원생(다산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 을 안았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내년에도 알레르기 질환 아 조기발견, 적정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로 진행을 억제하고 악화방지로 환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올바른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정보제공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무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안심학교를 확대 운영할계획이다.

김천시, 100년 숙원사업 해결…'복전터널 확장'

복전터널 2차로 확장 실시 설계 위한 실무협의회 가져

김천시의 100년 묵은 숙원사업인 '복전터널' 이 확장된다.

김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복전터널 2차로 확장 실시설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들은 복전터널의 설계방향, 향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 8월께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널 확장 공사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 김천시가 25%를 부담한다.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복전터널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설치된 터널 이다

개설 당시 시내에서 직지사 방향 터널은 왕복 2차로, 시내 방향은 1차로로 만들었다.

시내 방향 1차로 터널은 폭 3.3m, 길이 62m로 개설돼 주말과 행락철 직지사,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차량이 많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왔다.

터널 내부 콘크리트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도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부터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한 결과, 지난 5월 철도공단과 복전터널 확장에 따른 협약을 체결 했다.



시내 방향 1차로를 2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복전터널 확장은 김천의 관광 명소인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정 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경북도 국가상징 시책추진 평가 장려상 수상



김천시는 2017년 경북도 국가상징 시책추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태극기 게양률 제고, 국기게양대 정비 실적 및 국가상징 자체 특수시책 개발여부 등을 평가한 것으로 김천시는 2015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천시는 국가상징(태극기) 선양 조치의 일환으로 태극모양의 바람개비 및 태극트리를 시 청사 내외에 설치해 내방객들로 하여금 국경일의의미를 되새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일 기간대형 태극기 이미지의 전광판 홍보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 실천에 앞장서 왔다.

또한,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를 활용해 전 시민의 국경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태극기 달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국경일 전후로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해 애국심 고취 및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광복72주년 기념 '독도사랑,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차량용 태극기 달기 운 동'을 통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전 시민이 하나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 진해 왔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정신이 조금 더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기 게양관리 및 홍보를 위해 더욱더 노 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성주군, 지역인재육성 명문 반석 올라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합격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등 일부 수도권 주요 대학 수시모집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수능 수시모집에서 국내 주요대학 수시모집에 응시해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지역 교육분야는 축제 분위기로 한껏고조돼 있다.

성주고에서는 서울대 합격자 2명, 연세대 합격자 1명이 배출됐으며, 성주여고 역시 수도권 지역 대학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3명은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학교 정규학습과 함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별고을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원 학습을 병행해, 꾸준히 집중 집중관리 한 결과 국내 최고의 명문대에 최종합격하는 눈부신 성과를 얻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할수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 선을 다해준 학교 및 교육원 관계자와 학부모는 물론 한 치의 게으름 없이 열심히 잘 따라준 학 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이제 성 주군 교육도 전국 상위그룹과 당당히 경쟁하는 명문의 반석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지역이 요구 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박노균 기자



군위군 "신나는 겨울문화체험에 빠졌어요"

드림스타트, 영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겨울문화체험

"눈썰매도 타고 큰 바다 물고기도 보고 겨울이 정말 신나요" 겨울문화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추운날씨에도 지칠줄 모르고 눈썰매장을 누비고 다녔다.

군위 드림스타트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1~3 학년 등 저학년 3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맞 아 대구에서 에니메이션 영화 '메리와 마녀의 꽃'을 관람하고 대구신세계아쿠아리움에서 신 마는 바닷속세계를 관람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영유아와 부모 20명을 대 상으로는 대구 이월드에서 눈썰매타기와 눈사 람 만들기 등 신나는 겨울왕국체험을 했다.

군위드림스타트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운 여 건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동들을 대상 으로 매년 방학을 맞아 문화체험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성주군 나눔봉사단 성금모금 거리캠페인



성주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에서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성지군지부 앞에서 성주군청 희망복지지원단,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18 나눔캠페인의 홍보와 성금모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주 군민은 물론이고 성주 참 외로타리클럽 회원일동 (50만원), DGB대구은 행 성주지점 직원일동 (200만원), 동원건설 대 표 성수경(100만원), 성주육삼회(연탄2000장), 지역사회보장 실무 협의체 회장 이원기(떡국 100kg), 부창설비 김치수(보일러 1대) 등 현금 및 현물 기탁이 이어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 집 원생 150여명이 참여해 모금에 동참해 당일 1200만원을 모금했다.

이날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모금의 핵심 기 반인 풀뿌리 개인기부 확대를 통해 연말연시 모 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 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의 작은 기부가, 우리주변의 이웃에게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내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성금 및 물품 기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성주군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 바랍니다.(054-930-6241~6)

발노균 기자

안동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예천

의성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문경시보건소, 우수기관상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22일 경 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7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 25개 보건소 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 리사업 분야별 지표에 따라 시군 별 실적을 평가했다.

문경시보건소는 관내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33개소를 선정해 경상북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알레르기질환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아토피 보습제 및 홍 보용품 지원, 아토피 인형극 공 연 등을 실시해 아토피 천식 예 방관리사업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애주 건강관리과장은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 방 차원의 보건행정을 펼쳐온 직 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예방관리사 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예천군수 안동시장 성화 점화 주자 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 송 행사가 26일 오후 4시 경북도 청 신도시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예천 흑응풍물단의 흥겨운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성화점화, 성화봉송 등으로 진행됐으며, 환영인사,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웅비하는 예천군과 새롭게 조성되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경북도청신도시 구간 성화봉 송 불꽃은 오후 4시 20분경 예 천 검무로사거리(우방아이유쉘 1차 앞)에서 예천군수와 안동시 장에 의해 점화됐다.

점화된 성화는 검무로사거리-우 방아이유쉘-풍천신협상록지점-경 북경찰청-경북도청후문-풍천중사 거리-천년숲서로서단-경북역사마 당입구를 거쳐 경북 도청-하회마을 까지 봉송이 이뤄졌다.

이날 점화주자로 나선 예천군 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불꽃이 예천에서 점화된 걸 뜻 깊게 생각하며, 5만 예천 군민의 염원을 담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었다. 이주현 기자

봉화군의회 정례회 폐회

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제10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 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 일간 진행된 제217회 봉화군의 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Δ2017년도 군 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소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 Δ2017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Δ2017 년 행정사무감사 Δ2018년도 세 입세출예산(안) Δ군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상기기자

영주시, 2017년 흘린 땀…68개 분야 수상 영광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등 경제, 사회, 문화, 관광, 건축 등 사회전반에 걸쳐 빛나는 성과

영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부기관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잇따라 수상하며, 한해 추진한 정책과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영주시에 따르면 민선6기 시민을 위한 소통시정에 집중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각종 공모사업 및 외부평가 수상 실적이 68개에 달 하다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1만4127개의 공약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 '201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수상'을 비롯해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수상 등 총 68개 부문에서 공모사업 선정 및 각종 수상을 기록하며, 총 150억여원의 사업비와시상금 2200만원을 받았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54억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21억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사

업(28억원), 야심만만 영주장터 만들기 사업(10 억원) 등 총 35개 분야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 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영화관 건립 등 민자 유 치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종자돈을 확보했다.

경북도 주관으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경북도 축제평가에서 한국선비문화축제 '최우수',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 등 20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영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 대표 관광지'에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 국립공원 힐링로드 10선에 소백산 '죽계구곡'이 각각 선정돼 어느 해보다 우수한 문화관광분야 성과를 통해 '세계 적인 힐링관광도시 영주'로 인정받은 한해였다 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7 도시 건축 비엔날레에 초청돼 파리, 로마, 런던, 샌프 란시스코 등 전 세계 굴지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주시 공공건축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개관한 영주시 노인복지회관 이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제11회 대 한민국 공공건축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대



도시 건축 관계자들이 지방 중소도시 영주의 건축현장을 견학하러 오는 진기한 광경을 자아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공존하는 영주시 공공건축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행정대상,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 등 매서운 겨울 추위를 녹이 는 따뜻한 수상소식을 전해 영주시민에게 자긍 심을 심어주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광, 건축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통해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11만 영주시민들의 든든한 응원과 1000여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시정추진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바르게살기운동법전면협의회 연탄배달 봉사

회원 20여명, 마을이장, 면장 참여 난방시설 작동여부 화재예방 점검



바르게살기운동 법전면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 회원 20여명과 마을이장, 김복규 면장 등 이 직접 참여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는 저소득 노인 가구 2곳을 선정 하여 각 250장의 연탄을 직접 집안까지 배달 하여 쌓아주었으며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인 만큼 난방시설의 작동여부와 화재예방 등을 점검했다.

정재익 회장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힘 겨운 겨울나기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다"며, "어르신 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 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복규 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온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며 "오늘 봉사활동을 해주신 협의회 회원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문경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3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쾌거



복지사업별 조사 점검해 지역주민 복지증진 기여

문경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문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2015년부터 3년 연속 기관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노력 및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경시는 부 적정 수급 상설·정기 점검반 운영, 복지사업별 조 사·점검, 대국민 홍보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복지 재정누수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늘어나는 복지 예산만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사업 추 진, 복지재정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복지 체 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2017년도 일자리창출 마무리 총력

'일자리상황판'설치로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상주시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 자리창출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경제기업과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상황판은 최근 3년간 경제활동인구, 고 용률, 실업률 등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상주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국 및 경상북도 평균과 비교 해 보여줌으로서 상주시의 일자리상황을 한눈 에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 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 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상주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인 3802명 달성을 위해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 결과 실업률(1.0%) 도내 1위, 고용률(70.1%) 도내 2위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영주시, 경북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장중심 정책으로 경북 최초 아동친화도시 견인

영주시가 경북도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유니 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 아동권 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 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 하는 것으로,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 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온전히 누리 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30개국 1300여개 아동친화도시가 있으며, 영주시는 우리나라에서 19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가 됐다.

영주시는 그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 영주의 희망소리'를 슬로건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을 수렴해 시의 모든 정책에 아동 친화적 사고 가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 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 는 등 행정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초·중·고교생 5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 위원회를 만들고 워크숍, 역량강화 현장체험학습,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해 아동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실 현을 위해 힘썼다.

이밖에도 경북 최초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 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정 책 세미나 개최, 아동권리교육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권리·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부모에 게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지역 사회에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에 앞장 섰다.

올해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 강과 위생, 교육, 사생활 등 6개 분야 22개 사업 에 대한 4개년 추진계획과 영향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마 련했다.

지난 15일에는 구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 칠드런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부석면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올라올라놀이터'를 건립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상기 기자

봉화지역 기업·단체·개인 등 장학금 기탁 잇따라

안동봉화축협 장학기금 1천만원 전달



안동봉화축협에서는 지난 21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안동봉화축협은 1959년 설립돼 농협개혁 및 시장 개방화에 맞서 생산물 유통과 전자상거래 운영 등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지역 축산업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봉화군과 협력해 봉성면 금봉리에 한약 우프라자를 오픈해 봉화한약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형숙 조합장은 "장학기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나라와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자라주길 바란다"고전했다.

또한, 영창한의원 100만원(누계 1000만원), ㈜대양건설 120만원(누계 950만원), ㈜도원엔 지니어링 300만원(누계 1500만원), ㈜천일산업 개발 150만원(누계 850만원), 하나건축사사무소 100만원(누계 1200만원), 에덴의 동쪽(대표이미희) 150만원(누계 150만원), ㈜안동감정평가사사무소(배찬일) 120만원(누계 590만원) 등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계명대 학생상담센터, 우수상담기관 선정

연간 1만6000여명 학생들 이용 대학 생활 적응 위한 멘토 역할

계명대 학생상담센터가 전국대학교 학생생 활상담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2017년 우수대 학상담기관 평가에서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 담기관으로 선정됐다.

계명대 학생상담센터는 교수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상담매뉴얼 책자 및 동영상 개발, 교육을 비롯해 계명대학교 재학생들의 진로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KLC(Keimyung Life Career) 로드맵, 계명생애진로로드맵 등 진로영역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상담자와 학습멘토가 함께하는 목교기

반 자율형 학습프로그램, 소수자학생(장애학생, 편입생, 유학생 및 심리적 취약계층)의 학교적응을 위한 K-MOM(Keimyung-Mind care of Minority)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K-MOM(Keimyung-Mind care of Minority)프로그램은 소수자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본다는 뜻으로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편입생, 심리적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계명대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센터 운영 위원회와 성희롱고층상담 운영위원회 등 2개 의 위원회와 행정팀, 심리검사부, 상담지원부, 교육지원부, 성희롱고층상담부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000여 명의 재학생 중 16,00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다.

김은아(경제금융학전공 3학년) 학생은 "평소 가지고 있던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다"며, "전문가 분들 이어서 그런지 고민해결은 물론로드맵까지 작성해줘 큰 도움이 됐고, 실제 성적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손은정 계명대 학생상담센터장은 "계명대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상담센터 접근성을 증대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고 필



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는 매 년 활동, 상담전문, 프로그램 등 3개 영역별로 우수대학 상담기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대구영신고,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기탁

장학금 3% 자발적 어려운 친구 위해 138만9000원 기탁

대구영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대표 4명이 26일 대구교육청을 방문해 영신감사릴 레이 기금 138만9000원을 대구지역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 단'에 기탁했다.

영신감사릴레이 기금은 대구영신고등학교 에서 성적우수학생들이 장학금으로 받은 금 액의 3%를 이웃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 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4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총 적립액은 138만9000원으로 전액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한 것이다.

학생대표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이웃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기탁의사를 밝히며 "친구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구영신고등학교 박태운 교장은 "장학금 기탁으로 영신고학생들이 주변의 어려운 친구를 돕는 능동적인 기부체험의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다"며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 금 전달식에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영신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와 '대구 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된 장학기 금은 전액 적립해 대구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김진희 기자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 176억원 지원

44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신뢰감·만족감 부여 기반 조성

경북교육청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2018년도에 기금 175억9000만원을 44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통합학교의 급식시설 확충과 기구 구입 등 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특기적성교 육·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기숙사 운영 및 정보화기기 보급·관리 등 교육활동 지원사업,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통학에 필요한 경 비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총 2652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기숙형중학교인 안동 웅부중학교의 설립에 따른 5개중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405억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이중 175억9000만원을 2018년도에 통합학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장기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금 조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성교육·특기교육·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케 해 학생들의 문화소외 극복과 학력 및 다면적 역량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용구 기자

구미영재교육원, 152명 수료증 수여

초등 4개·중등 4개 과정별 영재캠프 등 학습·체험활동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구미초등학교에서 구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구미영재교육원의 1년간 활동내용 동영상을 보며 회상하는 시간, 각 과정별 수료 학생들의 소감문 발표 등 지난 1년 간의 영재교육활동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구미영재교육원은 2017학년도 초등 4개 과 정, 중등 4개 과정 학생들에게 각 과정별 학 습, 학부모공개수업, 창의산출물 발표, 영재 캠프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교 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육과정을 성실히 임한 15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5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추미애 구미영재교육원장(교육지원과장) 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창조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받은 우리 영재교육원 수료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21세기 세계중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 주길 바란다"며, "특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할 수 따뜻한 인성을 지닌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영양중앙초 아람단 단원 학교·지역사랑 봉사활동

영양중앙초등학교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아람단 단원을 주축으로 학교 및 지역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8~22일 학교사랑 봉사활동은 3~6학년 학생 38명(아람단 단원)과 담당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건물주변, 강당 등을 청소했다.

지난 21일 지역사랑 봉사활동에는 5·6학년 학생회 임원과 아람단 단원 등 15명이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학생들 개개인이 정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묵 념과 충의공원 주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 습이 인상 깊었다.

김진욱 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윤동기자



대구교육청, 2018학년도 후기고 합격자 발표

1만6793명 중 1만6323명 합격 내년 1월 추가모집 응시가능

대구교육청은 27일 2018학년도 후기고 입 학전형 합격(배정예정)자를 출신 중학교를 통 해 발표한다.

합격(배정예정)자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해 학군, 남녀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후기고 모집정원만큼 선발하는데, 전체 지원자 1만 6793명 중 1만632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가운데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 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정원외를 포함해 1만5525명(남 7777명, 여 7748명), 선지원일반고(다사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포산고, 현풍고) 합격자는 798명(남 421명, 여 377명)이다. 탈락자는 전기고 및 선지원일반고 신입생 등록 마감 후 모집정원에 미달된 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정원미달 학교의 추가 모집은 오는 2018년

1월 17일 공고를 거쳐, 해당 고등학교별로 18 일~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2일 전형을 거쳐 2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에 대한 배정 고교는 오는 2018년 2월 1일 12시 출신 중학 교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 정이다.

한편, 2018학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다자녀 배정(3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 학생은 배정희 망을 신청 받아 첫째나 둘째가 다니는 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에는 확대해 둘째까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년 다자녀 배정 신청 학생은 52명이다.

. 김진희 기자

수성대, 2017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획득

인증기간 내년 3월부터 3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활기

수성대학교가 교육부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더욱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수성대는 26일 교육부로부터 '2017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 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18 년 3월부터 3년간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유학 생 비자발급 기준과 절차가 간소화 되고, 정부 초청장학생(GKS) 사업 및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이 가능하게 됐다.

수성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필수지 표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율에서, 핵심여건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신입 생 기숙사 제공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대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 39 명이 재학중에 있고,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생이 130명에 이르는 등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활 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GTEP사업 3회 연속 선정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해외지역특화 무역인재 양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주캠퍼스는 이번에 GTEP사업에 재선정되면서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됐다.

GTEP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 역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지역특화 무 역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주캠퍼스 GTEP사업단은 앞으로 3년간 매년 30여명의 학생을 선발해 중앙아시아(투르크경제권역) 특화지역 언어와 상관습, 법령,

무역실무지식을 교육한다.

경주캠퍼스 GTEP사업단은 지난 2012년 글 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시작으로 GTEP 사업에 선정된 이래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수 행해 오고 있다.

올해 제10기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식 및 11기 발대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회장 상,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성훈 GTEP사업단장은 "동국대학교는 3 회 연속 사업에 선정되며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FTA확대와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의 변화에 따른 필요역량을 갖춘선진형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찬기자

경북교육청, 결핵퇴치 재원확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성금 전달

경북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에서 크리스마 스 씰 모금 성금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 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의 상징인 크 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결핵 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결핵 없는 사회, 건 강한 국가'를 목표로 국가결핵정책 지원의 재 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영우 교육감은 "결핵은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학생들도 결핵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며 "경북교육청도 결핵 없는 학교를 위해교직원 자율 성금 모금을 통해 학생들의 결핵관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결핵 퇴치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저출산대책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저출산 정책 변화해야…나라 근간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 "기존 대책 한계 확인…여성의 일·삶 지킬 수 있는게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 무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 임이 지금이고,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 각하다.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한다"며, "50만 명대에서 40만 명 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40만 명대 로 떨어지고 30만 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거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 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이 된다는 예상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 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 달라"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 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우선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

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 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방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확장하는 노력들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대구시의회, 연말맞아 무료급식 봉사활동

류구하 의장 등 20여명 참여 소외된 이웃 위한 나눔 실천

대구시의회가 연말을 기해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자비의 집(중구 문우관 길 73소재)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자비의 집에 도착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시간여 동안 급식소를 찾은 3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20일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진행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을 주고자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시간이었다"며, "새해에도 시의회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하기자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26일 오전 중구에 위치한 자비의 집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야, 개헌특위 연장 놓고 '3당 3색'

민주당 "협상에 할만큼 다했다" 한국당 "맹처리 패키지로 다뤄" 국민의당 "개헌·선거 개혁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행선 구도로 12월 임시국회 본회 의조차 열리지 않아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26일 접 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 련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에 반대의사 를 분명히 했다.

개헌특위 연장 기한도 6개월로 못 박고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개월 연장안을 받는 대신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는 결렬됐다.

이에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당일 본회의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감 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 민 생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임시국회 기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은 수차례 양보를 했으나 한국당 측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 면서도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양보안을 내도 (한국당이) 하나도 수용을 안 한다. 저희는 원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진행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연장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2월 말까지 연장하자고 한번 양보했는데 거부당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 연장안을 받고 2월까지 합의 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흰 협상에 할 만큼 다 했다. 개헌 하려는 노력도 지키고 대법원 구성,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일몰법 등 민생법안들은 최소 국 회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여당 책임이겠다 싶어서 할 거 다한 것"이라며, "그 런데 이걸 안 받겠다는 건 개헌과 관련한 저 희들의 공약포기를 선언하라는 것 아니겠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만 내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 통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이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내세워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한국

당은 문재인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내년 12 월31일 이내에 국민참여를 사회적 논의에 이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혈안이 돼있는 문재인개헌은 즉각 중 단돼야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개헌특위,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해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1야당인 저희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난 뒤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시도했 으나 이미 국회를 떠난 상태여서 성사되지 않 았다. 이와관련 국민의당은 아직 어느 쪽 편 을 들지는 않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이달 26~27일 양일 또는 1월 초께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어떻게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적대적 양당제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을 적 극 설득하긴 커녕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합의하고서도 정작 딴 죽걸기로 일관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쳐 운영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1월 초순까지 조직 정비 마무리"

큰 어려움은 다 지나가… "내년 선거 승리 힘모아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당 조직강 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이 본격 시작되 는 데 대해 "내년 1월 초순까지 조직 정비를 마치고 모든 정강 정책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 된 당 대표 주재 중앙직능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6개월 동안 당이 혼돈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당 정비가 거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당협과 중앙위 조직 양대 체계를 통해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새롭게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어 "금년 말까지 조직정비를 가능하면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곧 지 방선거 기획단도 출범하고 조강특위는 오늘 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잘 마무 리해 새롭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 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중앙직능위원장도 "18개 분과와 6 개 당 조직의 틀은 다 잡아놓았지만 당협위원 장 인선과 연관된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자 리가 비어 있고 또 성일종 의원이 충남도당위 원장이 되면서 4개 분과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조직을 최대한 빨리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강한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

장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대표 김성용 | 발행인 정주필 | 편집국장직대 조여은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60 당시 강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회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0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安·劉, 한자리에…'통합투표' 당원 설득 메시지 내놓나

통합 찬반 막판 여론전 '사활' 간담회서 양당 안보관 등 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양당 간 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 로 만난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 의당 전(全)당원투표 시행 첫 날 두 대표가 자 리를 함께 하며, 이들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대표의 경우 통합 반대파와의 갈등이 극에 치달은 상황에서 통합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당원들을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유 대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의지를 재차 나타내며, 당대표직까지 내건 안 대표에게 힘 을 실어줄 전망이다.

바른정당 원외위원장 모임인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서 열리는 간담회에 안 대표를 초청한다고 26 일 밝혔다. 유 대표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 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triangle 통합 추진의 목적과 시점 \triangle 통합 이후 지도체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제 등 정당 운영방식 \triangle 중도 확장 전략 \triangle 통합 신당의 개혁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오을 원외위원장협의회 대표는 "이번 간 담회를 통해 양당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 며,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안보관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27~28일 케이보팅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31일 오후 1시 발표한다.

